

서해어업관리단, 불법그물 사용 중국어선 2척 나포

- 멸치 약 3,500kg을 불법포획한 중국어선 2척 나포

해양수산부(장관 강도형)는 12월 1일(일) 07시 50분경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.

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(무궁화24호)이 나포한 중국어선 A, B호는 11월 30일(토) 18시경 한국수역에 입역하여 규격(그물코 54mm이하 사용금지)보다 작은 10mm의 그물을 사용하여 멸치 약 3,500kg을 포획 후 무단반출할 목적으로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았다.

< 나포 현황 >

일시 / 장소	선명	톤수	승선원	위반사항
2024. 12. 1.(일) 07:50 /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67해리(약 124km)	A, B호 (중국 저인망어선)	각 106톤	각 8명	그물코 규격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

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,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각 1억2천만원을 부과하였다.

박천일 서해어업관리단장은 “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그물을 사용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”라며 “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	책임자	과 장	지정훈 (044-200-5560)
		담당자	사무관	황수미 (044-200-5571)
	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	책임자	과 장	최정호 (061-240-7904)
		담당자	주무관	정무학 (061-240-7940)

참고

중국어선 단속 사진



노영어 A호 선체 전경



노영어 B호 어구 계측